광주, 선두 질주 속도 낸다

22일 K리그2 경남 원정 경기
이정효 감독 "광주의 축구 하겠다"
전남은 안산 상대 중위권 도전

허율

광주FC가 '무심(無心)'으로 선두 질주에 속도를 낸다.

광주는 22일 오후 4시 진주종합경기장으로 가 경남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17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K리그2 1위 광주는 지난 15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허율과 하승운의 골로 2-0 승리를 장식했다.

이날 승리로 홈 9연승(FA컵 포함)을 달린 광주는 K리그 시도민 구단 리그 홈 최다연승(8연승) 기록에도 타이를 이뤘다. FA컵 승리까지 10경기에서 9승 1무를 기록하는 등 광주는 뜨거운 질주를 하고 있다.

또 거세게 추격을 해왔던 2위 부천FC는 무승부를 기록, 광주와 4점 차로 멀어졌다.

1위 질주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은 '무심'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 감독은 앞선 안산전 경기가 끝난 뒤 "생각을 안 하는 게 상승세의 비결이다. 연승했는지 생각 안 하고 우리 경기만 생각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해나가자는 생각이다"며 "2위 신경 안 쓴다. 우리가 잘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하면 된다.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할 것이다"고 언급했었다.

연승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내부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것에 신경 쓰면서 '광주의 축구'를 하겠다는 게 이정효 감독의 각오다.

광주는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도 갖췄다.

올 시즌 1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만든 광주는 엄지성과 헤이스 등 기존 공격 자원 외에도 이으뜸, 안영규 등 수비 라인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리그 최다 득점 3위(21득점)에 올라있다.

이정효 감독의 용병술도 눈에 띈다. 앞선 안산전에서 교체 투입된 허율과 하승운이 나란히 득점을 기록했다. 이 득점으로 허율은 15라운 MVP에 올랐고, 하승운은 시즌 마수걸이 골을 장식했다.

수비도 탄탄하다. 광주는 안영규, 김재봉, 김현훈 등 수비라인의 철벽 대인방어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는 등 현재 리그 최소 실점(10실점) 공동 1위에 올랐다.

이번 경남전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을 경계 해야 한다. 경남은 득점 선두 티아고(7골)를 중심으로 에르난데스, 윌리안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최근 리그 4경기 무패(3승 1무)를 달리고 있다.

광주가 공략해야 할 지점은 느슨한 수비 조직력이다.

경남은 24득점(리그 최다득점 2위)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실점률 1.8골, 리그 최다실점 2위(26실점)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16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로 경남의 수비를 흔들 계획이다.

7경기 만에 승리를 만든 전남드래곤즈는 21일 오후 6시 30분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지난 17일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면서 3무 3패, 무승 부진을 털어냈다.

화력 고민 속 어려운 행보를 했던 전남은 안양전에서 12개의 슈팅을 날렸고, 4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등 시원한 공세를 벌였다.

김태현과 이중민은 헤더로 골망을 흔들면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승리로 ACL 후유증을 날린 전남은 홈팬들의 응원 속에 연승을 겨냥한다.

앞선 대결에서 전남과 안산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볼점유율 70%, 슈팅 15개, 유효슈팅 7개를 만들어내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안산 골키퍼 이승빈의 선방에 막히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로 전남이 우위를 보였다.

최근 분위기도 전남이 앞선다. 전남이 앞선 경기에서 승리 갈증을 풀었지만, 안산은 개막 후 15경기에서 7무 8패로 아직 승리를 만들지 못했다.

전남이 상승세를 이어 연승으로 중위권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마지막 도전'

23일 0시 EPL 최종라운드
토트넘, 꼴찌 노리치와 경기
손흥민 1골 넣으면 득점왕
팀 무승부만 해도 챔스 진출

손흥민이 오는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과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한국시간으로 23일 0시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가 일제히 치러진다.

토트넘은 이날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꼴찌' 노리치 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의 사상 첫 아시아인 유럽 빅리그 득점왕 등극과 토트넘의 다음 시즌 UCL 진출 여부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갈린다.

치열하게 전개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리버풀의 우승 경쟁 드라마도 결말을 맞이한다.

◇박빙의 득점왕 경쟁…펄펄 나는 손흥민이냐, 날개 꺾인 살라냐

득점왕 경쟁은 손흥민과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21골을 넣은 손흥민이 22골을 기록 중인 살라를 1골 차로 쫓고 있지만, 오히려 유리한 쪽은 손흥민이다.

7경기 연속골을 쏠 정도로 뜨겁던 살라의 득점포는 한 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애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18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37라운드에는 출전하지도 못했다.

반면 손흥민은 펄펄 날고 있다. 그는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다.

EPL에서는 득점 수가 같으면 출전 시간 등 다른 기록을 따지지 않고 해당 선수들이 공동 득점왕 오른다. EPL에서 공동 득점왕은 4차례 나왔다.

◇토트넘, 아스널 따돌리고 3시즌만에 UCL 진출할까

손흥민의 후반기 맹활약 덕에 4위(승점 68·골득실 +24)까지 치고 올라온 토트넘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5위(승점 66·골득실 +9) 아스널의 추격을 따돌려야만 4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UCL 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토트넘은 골실에서 많이 앞서있어 사실상 비기기만 해도 4위를 수성할 수 있다.

상대인 노리치는 최하위(승점 22)로 이미 강등이 확정됐고 최근 6경기(1무 5패)에서 16실점할 정도로 수비가 허술하다.

반면 아스널은 아직 강등 가능성이 있어 사력을 다할 16위(승점 36) 에버턴과 홈에서 대결한다.

토트넘이 4위를 수성하면 2019-2020시즌 이후 3시즌만에 UCL 무대에서 경쟁하게 된다.

◇선두 맨시티 vs 승점 1 뒤진 리버풀…'우승 레이스 결말도 최종전에서'

치열했던 우승 경쟁의 승자도 결정된다. 선두(승점 90)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2위(승점 89) 리버풀이 승점 1차로 추격하고 있다.

맨시티는 홈에서 애스턴 빌라를, 리버풀은 홈에서 황희찬의 울버햄프턴을 상대한다. 맨시티가 비기고 리버풀이 이기면 리버풀이 역전 우승을 하게 된다. 두 팀 모두 승리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리버풀은 29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UCL 결승전을 치른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살라가 몸상태를 회복할 경우 무리해서 EPL 최종전에 뛰게 할지, 아껴뒀다가 UCL 결승전에서 활용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범근 이후 42년 만에 …프랑크푸르트, 유로파리그 우승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와 결승전
승부차기 끝에 5-4로 승리

독일 프로축구 프랑크푸르트가 42년의 한풀이에 성공했다.

프랑크푸르트는 19일 스페인 세비야의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레인저스(스코틀랜드)와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겼다.

이로써 프랑크푸르트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맹활약했던 1979-1980시즌 UEFA컵(현 UEL) 우승 이후 무려 42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다시 올랐다.

전반에는 두 팀이 0-0으로 맞섰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반 12분 지브릴 소우의 중거리 슛과 8분 뒤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든 안스거 크나우프의 슛이 상대 골키퍼 앨런 맥그리거에게 막혔다.

반격을 노린 레인저스도 전반 26분 조 아리보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벗어나는 등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0-0으로 시작한 후반에는 레인저스가 먼저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12분 프랑크푸르트 수비진의 패스 과정에서 빈틈이 발생하자 아리보가 공을 가로채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자 프랑크푸르트는 후반 24분 동점골로 응수했다. 필립 코스티치가 왼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라파엘 보레가 이를 골 지역 정면에서 밀어 넣어 균형을 맞췄다.

팽팽한 흐름 속에 두 팀은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으나, 1-1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희비는 승부차기에서 엇갈렸다.

레인저스의 네 번째 키커 에런 램지의 슛을 트랍이 막아냈고, 프랑크푸르트는 키커 5명이 모두 성공해 5-4로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4월 이달의 감독' 이정효, 광주FC 선수들에 책 선물

'4월 이달의 감독'인 광주FC 이정효(사진)감독이 선수들에게 책을 선물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광주의 K리그2 1위 질주를 이끌고 있는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처음 지휘봉을 잡은 '초보 감독'이다.

프로 사령탑을 맡자마자 이 감독은 '이달의 감독'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감독은 지난 4월 진행된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행진을 지휘하면서 광주를 1위로 올려놨다.

선수들은 '깜짝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이 감독의 수상을 축하했고, 사령탑은 선수들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선수들에게 전해진 책은 펜실베니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앤절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다.

'그릿'은 특별할 것 없는 재능에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천재적인 재능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저 그런 성취에 머물고 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기개발서다.

이 감독은 "이달의 감독상 수상은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고민 하다 책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릿'은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다"며 "선수들이 실력, 재능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해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를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책에 담긴 이 감독의 마음은 그라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3일 경남 원정경기에서 승리하고도 불같이 화를 내는 이 감독의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감독은 "승기를 잡았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인 선수들에게 화가 났다"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득점을 했는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열정과 끈기를 강조했다.

선수들도 이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부주장 김종우는 "8년이라는 시간 프로무대에 있었지만, 뒤돌아보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들 모두가 '그릿'의 열정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으뜸은 "선수들이 운동에 임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며 "긍정적인 변화에 기분이 좋다. 고참으로서 열정과 끈기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